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른 신앙이 꽃으로 피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교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3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조사 방식 등에 의문부호를 던지며 개운치 않는 반응을 보여 왔다.

통계청 발표대로 10년에 300만의 불교인구가 줄어든 것이라면 일 년에 30만 명씩 줄어든 셈이다. 내가 머무는 익산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고 인근의 군산 인구가 30만 명에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한 해에 한 지역의 전체 인구가 불교 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이다. 만일, 이런 하향곡선으로 이어지는 불교인구가 감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불교계의 미래는 어둠의 그림자를 더욱 진하게 남길 터이다. 통계청의 통계 잘못만을 지적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자성(自省)의 대비책이 강구 돼야 할 것이다.

우선은 한국 불교의 현 주소를 조명해 과감한 풍토개선과 바른 신앙에 대한 개혁의 실천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 생명력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화가 으뜸 덕목이 되어야 한다. 경전의 중심사상인 중도(中道)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연기법칙(緣起法則)의 바른 이해로 삶의 현장에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생활 불교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야 한다.

불교는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 중심의 신본주의(神本主義)의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심본주의(心本主義), 깨달음의 종교이며 자력신앙(自力信仰)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오늘의 종교임을 알려가야 한다.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여섯 가지 바른 길인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과 정진(精進),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의 실천 덕목의 의미를 일깨워 줘야한다.

해탈자의 열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정견(正見), 정사(正思),정어(正語), 정업(正業),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영원한 진리, 팔정도(八正道)를 펼쳐 오늘의 참 주인공이 되도록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해야 한다. 불교는 전생이나 내생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현생(現生)의 종교이다. 지나간 어제와 다가올 내일의 종교도 아니다. 오늘의 종교이다.

동·서·남·북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방, 팔방이 열리는 것이다. 임제선사의 말씀처럼 나는 어느 곳에 있어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에겐 변두리도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나의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르는 곳마다 정토세계(淨土世界)인 것이다. 나는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주인공으로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열린 내 자신이 부처인 것이다. 불교의 연기법칙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 돌연변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네 탓이 아닌 나의 잘못이며 곰곰이 살펴보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감사와 고마움, 미안함이 삶의 풍요를 더욱 아름답게 키워 나갈 터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生)·주(住)·이(離)·멸(滅)하고 성(成)·주(住)·괴(壞)·공(空)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브라흐만(Brahman)을 인정할 수 없고 영원불변한다는 아트만(Atman)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불자 인구 감소, 바른 신앙 없기 때문
心本主義 기반한 생활불교로 변화해야

육도윤회 또한 사람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될 수 있듯 살아서 축생도 되고 배고픈 아귀도 되며 타는 목마름의 지옥도, 행복 충만한 극락도 번갈아 가며 겪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현생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시야를 넓히는 종교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학문수행과 심성수행(心性修行)을 게을리 하지 말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경전중심, 설법중심보다 목탁중심의 의식불교(儀式佛敎)로 치닫는 게 문제이다. 무당의 짓거리와 승려의 행위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사찰경제를 앞세운 신앙의 흥정놀음이 사라져야 불교의 미래는 밝을 터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선 오늘의 참 주인공으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일 수 있게 불자(佛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이 꽃으로 피길 바랄 뿐이다.

깨달음은 모두 마음서 나온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당나라 현종 때 사공산(司空山) 무상사(無相寺)에 본정(本淨) 선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한 번은 왕이 중사(中使)인 양광정(楊光庭)을 산으로 보내 산춘등(常春藤)을 캐어 오게 했다. 양광정이 산에 와 지나는 길에 절에 들려 본정 선사를 뵙게 됐다. 그가 절을 하고 물었다.

"제가 도를 사모한지 모래입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로써 가르쳐 주십시오."

본정 선사가 대답했다.

"천하 선종의 석학(碩學)들이 모두 장안으로 모이니 천사(天使)께서는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물을 수 있을 것이오. 나(貧道)는 산수에 의지할 뿐 마음을 쓰는 바가 없소."

광정이 더욱 간절하게 다시 절을 하였다.

"나에게 절을 하지 마시오. 천사는 부처를 구하는거요, 아니면 도를 구하는거요?"

"제가 우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와 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 부처를 구하고 싶다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만약 도를 알고 싶다면 무심(無心)이 곧 도라오."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까?"

"부처는 마음으로 인하여 깨닫고, 마음은 부처로서 드러나는 것이니, 만약 무심을 깨달으면 부처도 있지 않다오."

"어찌하여 무심이 곧 도입니까?"

"도는 본래 마음이 없어서 무심을 도라 하니 만약 무심을 요달하면 무심이 곧 도라오."

광정이 가르침을 받고 절을 하고 나갔다.

대궐에 돌아온 뒤 광정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광정에게 본정 선사를 불러들이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선사가 장안에 이르자 백련사에 머물라는 조칙을 내렸고, 이듬해 선교 양가의 명승과 석학들을 내도량으로 부처의 법을 선양(宣揚)하게 하였다.

그때 원(遠) 선사라는 이가 큰 소리로 본정 선사에게 말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종지를 비교하고 헤아리고 있으니 마땅히 곧바로 묻고 곧바로 대답해야지 번거롭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선사가 보는 바로는 무엇을 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도입니다."

'원 선사가 다시 말했다.

"도는 마음을 인하여 있거늘 어찌 무심을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마음을 인하여 도라 이름 하오. 마음이란 이름이 만약 있는 것이라면 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음을 궁구하면 본래 있지 않은 것이거늘 도가 무엇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리오. 두 가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요."

"선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음을 보는 것이 도입니까?"

"산승에게는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오."

"아까는 무심이 도라 하시더니 이제는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하시니, 어찌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무심이 도라면 마음이 없어질 때 도도 없어지는 것이니, 마음과 도가 하나와 같기 때문에 무심이 도라 하였고,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함은 도도 본래 몸과 마음이니, 몸과 마음이 본래 공했으므로 도 역시 근원을 궁구하면 있지 않은 것이오."

"선사의 몸을 보건대 몹시 왜소한 데도 이런 이치를 아시는군요."

"대덕은 다만 나의 모습 만을 볼 뿐 나의 모습 없음은 보지 못하는구려. 모습을 보는 것은 대덕의 소견일 뿐이요. 경에 말하기를 '무릇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닌 줄을 보면 즉시 그 도를 깨닫는다' 고 하였으니 모습을 진실이라 여긴다면 겁이 다하도록 도를 깨닫지는 못할 것이오."

"이제 바라건대 선사께서는 모습 위에서 모습 없음을 설해 주십시오."

"〈정명경〉에 말하기를 4대(四大)에 주재자가 없고 몸 또한 나(我)도 없고 내 것(我所)이라는 소견도 없어야 도와 더불어 상응한다 하였는데 대덕이 만약 4대에 주재자가 있다고 여기면 이는 내가 있음이요, 만약 나라는 소견이 있으면 겁이 다하여도 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이상과 같은 대화가 〈전등록〉 5권에 수록돼 있다. 부처를 구하지 말고 도를 구하라는 뜻이다.

유정 분별 여의는 것, 깨달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⑩ 유정과 무정의 불성

지난날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깨달을 수 있는가' 란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들에게 가져 올 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불성의 여부와 깨달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생에는 유정중생, 무정중생, 무색중생(無色衆生)이 있으며, 유정중생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정이 있는 중생을 말하고, 무정중생은 산, 강, 나무, 돌 등 정이 없는 중생이며, 무색중생은 물질이 없고 생각만 있는 중생을 말합니다. 무색중생에서 무색(무색)이란, 물질이 본래 없거나 물질이 없어져서 무색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 고 하는 우리들의 분별의 생각이 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무색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닌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불성, 에너지, 마음이라고 하며, 또한 깨달음을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불성은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중생이 한 마음이고,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일체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성을 알고자 한다면 '불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분별을 여의는 것이 불성이고, 우리들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망념을 여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택신회 선사는 "깨닫는 성품이 있는 것이 유정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유정은 깨달을 수 있고 무정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물인 사람과 무정물인 나무는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유정인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고, 무정인 나무는 분별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회 선사가 말한 유정의 깨닫는 성품이란,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고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단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망념을 일으키므로 망념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째서 분별망념을 일으키고, 미혹하며, 고통에 떨어지는가?

항하사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바르게 보아서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 분별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고통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끗하다' 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들은 '깨끗하다는 생각이 생겼다' 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생각은 스스로 생기거나 있을 수 없고, 오직 더러운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있을 수 있으며, 더러운 생각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하며 인연에 의해서 어울린다' 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없으면 깨끗한 마음도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대상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진공, 없는 것도 아닌 묘유가 됩니다. 서로 융통하여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은 서로 같은 뜻, 즉 한마음이므로 서로 생기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쌩뚱! 맞은 소리!

소리공학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법당들의 소리는
심오한 염불정서와 전혀 다른 쌩뚱맞은 소리로! 이런 소리에 내 염불을
실림으로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림에서 목이 가고 수 만번
반복 속에 만성피로에 젖어듬에도 원인조차 모른체
참으로 힘들게 염불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

법당소리 비교시 놀랍도록 선명한 소리의 차이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말없이 쌔엥! 가버리는 이유는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지만 어마! 어마! 한
소리의 차이를 잊지않고 고민이 정리되면 반드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앰프 다루기 1초! 고장도 없지만 지금은 A/S가 부실하면 문을 닫는 시대!
토탈시스템 완벽시설후 귀 법당 기존 시설의 평균 절반가격 할부가능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은 각종 제품이 다 있으니 소리구경 하세요!

☎ 055) 343-1191, 010-9471-2026
(주)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소리공학 저서)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